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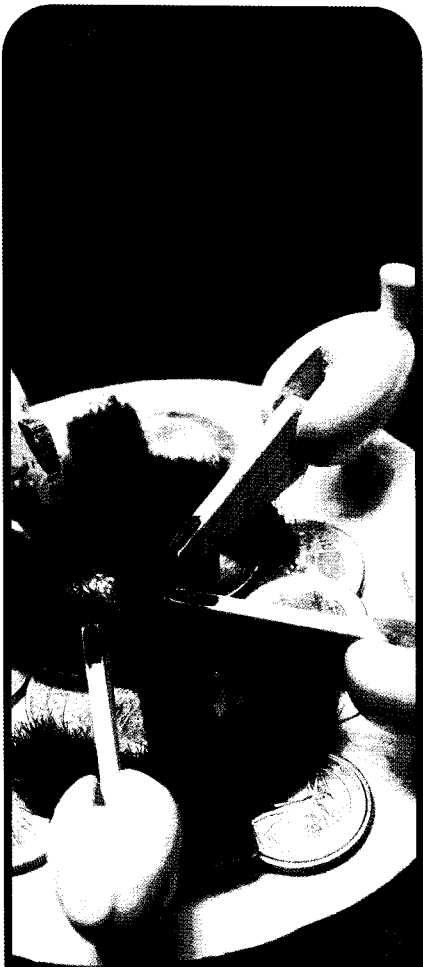
치킨, 영혼을 나누게 하다

지난달 남아공 월드컵 경기를 이웃 아파트에 가서 프로젝트로 관전했다. 한국과 그리스가 펼치는 경기에서 우리 이정수 선수가 한 골을 넣더니 다시 박지성 선수가 깔끔한 슈트를 날려 순식간에 2:0이 되었다. 더 앉아서 구경을 하려고 했지만 옆자리에서 솔솔 풍겨오는 치킨냄새 때문에 도저히 그냥 있을 수가 없었다. 집으로 돌아가 아내 옆에서 바베큐 치킨을 안주삼아 맥주나 한 병 마시려고 치킨집으로 향했다.

집에 와서 아내와 마주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해가며 축구경기를 마저 시청했다. 그러다가 아내가 이것은 딸아이가 좋아하는 치킨이라고 말하며 도서관에서 공부하느라 여념이 없을 아이가 식사는 제대로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아내는 무엇인가 좀 맛나고 특별한 음식을 보면 딸아이가 생각난다고 한다. 그리고 보니 닭고기를 유난히 좋아하는 딸은 자신이 직접 갈릭 치킨이라는 것을 해먹을 정도로 닭고기 매니아다.

가끔 필자에게 치킨을 사달라고 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이 사서 같이 먹기도 하는 딸은 밤참에서 만큼은 나와 뜻이 잘 맞는다. 아내는 그런 우리들을 보며 너무 늦은 시각에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건강에도 좋지 않고 살찐다고 말하곤 한다.

그렇다고해서 말을 고분고분 듣는 우리가 아니다. 딸아 이와 머리를 맞대고 그 동안 서로 하지 못했던 이야기보



나재천 박사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기금과

따리를 풀어놓으며 먹는 치킨은 그냥 닭고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어느 라디오방송에서 식탁에서 음식을 나누는 행위는 영혼을 나누는 것이라고 했다고 아내가 말했었다. 하루에 저녁시간만이 가족과 식사를 나누는 시간인데 그마저도 용이치 않은 날들이 많다. 그런데 서로 마음이 맞아서 스스로없이 온갖 수다를 떨어가며 함께 하는 이 달콤한 시간을 어찌 포기하랴. 이 시간이야말로 내게는 딸과 영혼을 교감하는 시간이다.

우리는 유일하게 아내의 손을 빌리지 않고 딸아이와 서로 소금그릇과 무절임 그릇 챙기라고 부산을 떨며 치킨 상을 차린다. 이렇게 상을 차리는 것에는 아버지나 남자라는 이유로 머뭇거리게 하는 여타의 감정이 개입하지 않는다. 단지 바로 뒤에 바삭한 질감의 고소함과 폐부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맥주, 시큼한 무절임이 어우러지는 식감과 그 사이사이 이어지는 가족들과의 대화에 대한 기대가 이 행동을 재촉할 뿐이다. 위가 좋지 않은 아내는 같이 먹지는 않지만 그 분위기에 참여하는 것을 좋아한다. 초저녁잠이 많아 졸려 하면서도 옆에 앉아 우리의 대화를 듣는다.

한 때, 베스트셀러로 유명했던 마음을 여는 101가지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다. 이 책의 원제가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로 그 시리즈 중에 하나라고 했다. 서양인에게 있어 닭고기 스프라는 것은 감기나 몸살이 났을 때 우리네 어머니의 콩나물국이나 콩나물과 배와 꿀을 재어 아랫목에다 넣어 만든 민간요법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한다.

그 만큼 어머니의 치유의 정성이 가득 들어 있는 이 음식은 지치고 힘든 우리의 영혼을 위로해준다는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내게 있어 가족과 나누는 치킨 한 조각은 바로 그런 의미이다. 그리고 행복이 손에 쥐어진 가장 구체적인 느낌이다.

문득, '딸아이에게 닭고기는 어떤 의미가 다가갔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딸아이가 어렸을 때, 아내는 좀 더 생활비도 아끼고 건강을 생각해 닭고기를 사다가 자신만의 양념으로 만든 닭튀김을 해주었다. 간단하게 시켜먹으면 될 것을 굳이 기름 냄새 풍겨가며 애쓰는 아내를 보면서 안쓰러우면서도 대견해 했었다. 딸이 친구들에게 가끔 집에서 닭튀김이나 바베큐를 해주는 것은 어린 시절의 추억도 한 몫 하지 않았나 싶다. 그 아이에겐 아마 자신이 그리워했고 먹고 싶었던 그 음식이 타인을 대접하는 최고의 음식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보니 닭고기라는 것은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추억을 주는 것 같다. 닭고기 스프에 얹힌 서양의 이야기도 그렇지만 요즘 월드컵 경기를 관전하면서 혹은 어떤 야외활동에도 빠지지 않는 것이 치킨이니 말이다.

예전에는 여름철 보양식을 먹을 때나 사위가 올 때 고아주었던 닭이 이제는 가장 손쉽게 찾을 수 있는 식품이 되었다. 치킨이라는 말이 우리들에게 통하는 닭튀김이라는 의미의 대명사로 변한 것처럼 우리의 식문화도 많이 서양화되었다. 하지만 가족과 함께 영혼을 나누는 의미만은 퇴색되지 않고 영원했으면 하는 것이 나의 작은 바람이다. 